

지난 11월 11일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갑자기 미각과 후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오늘도 깍두기를 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평소 먹던 맛을 머리 속에서 기억하면서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있으니까 소중함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상실을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차례 백신을 맞았기에 심하게 고생하지는 않았고 심한 감기몸살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네팔에 한국 해외봉사단에 파견된 의사가 계셔서 그 분의 지시대로 치료를 받아 차츰 잘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저와 접촉한 주위 분들이 감염되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네팔은 인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카트만두에 살던 한국 선교사들도 반 이상이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파 교회도 지난 달부터 대면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시간에 둘러보면 저희 부부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팔에 다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4년 공식적인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몇 년간은 네팔과 한국 두 나라를 번갈아 가며 사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에서는 세르파 구약번역과 사전편찬을 중점적으로 여행자 비자가 허락되는 5개월간 사역하게 되며, 나머지 기간은 한국에서 지비티의 새로운 학술법인체 설립을 돕는 한편 성경번역 컨설턴트로서 후배들이 번역한 성경을 줌으로 점검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월에 터전을 미리 잡게 하신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의 집은 2024년 은퇴시기에 맞추어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간 두 곳에서의 사역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예술활동을 해 나가는 영림이에게서 며칠 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12월 1일 Gold Art Prize 라는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출신의 예술가 다섯명을 선출하여 2년에 한번씩 시상하는 상입니다. 상금도 25,000불이어서 영림이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웹사이트: <https://www.artnews.com/art-news/news/gold-art-prize-2021-winners-1234611352/>).

백인 예술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 살아 남으려고 열심히 예술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나름 몸부림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가 많지 않은 예술가들 속에서 영림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돌아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룡, 이해련 드림